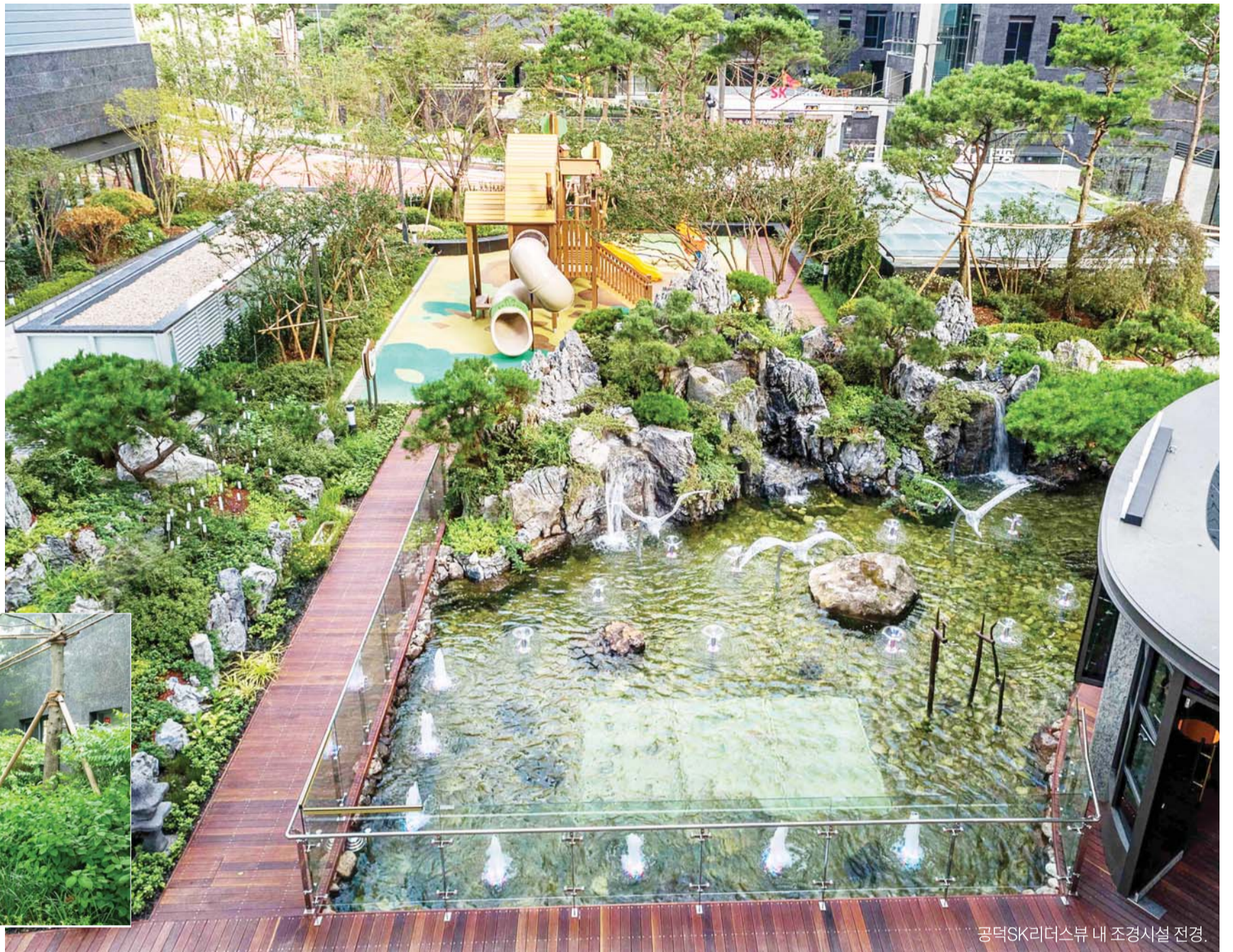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공덕SK리더스뷰. 사람들이 오고 가는 도심 한복판에 입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작은 생태공간이 있었다. 회색빛갈 도시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단지 내 녹지공간은 주민들에게 편안한 안식처였다.



공덕SK리더스뷰 내 조경시설 전경.

## 도심 한복판 산책로서 '초록심표', 연못서 '푸른심표'

### 아파트의 미학(美學)

#### <15> 공덕 SK리더스뷰

자연 친화적인 '생태공간' 돋보여 생태연못 중심으로 산책길과 정원 야외 커뮤니티 카페션 연못 한 눈에 단지 뒤편으로는 들꽃·나무 한 가득

#### ◆생태연못, 입주민 휴식공간으로 각광

지난 15일 SK건설이 시공한 공덕SK리더스뷰를 찾았다. 이 아파트는 지하철 5·6선과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등 총 4개의 노선이 지나는 공덕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데다 광화문, 여의도 중심업무지구와도 가까워 교통과 직주근접성에서 최고의 평을 받고 있다.

빌딩 숲을 뚫고 공덕SK리더스뷰 정문을 지나 단지 안을 살폈다. 정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었다. 단지 중앙에는 생태연못과 야외 커뮤니티 시설인 '비오토피아 카페'가 자리했다. 이름은 도심 속 인공 생태공간이라는 뜻을 가진 '비오톱'이라는 단어에서 따왔다. 일상에 지친 주민들이 잠시 쉬어가기에 안성맞춤의 공간이다.

공덕SK리더스뷰는 이 생태연못을 중심으로 정원이 꾸며졌다. 정원 안에 마련된 산책길을 거닐었다. 연못 안에 장식된 물새 모양의 조형물이 인상적이다. 이밖에 잔디밭이나 정원에 동물 모양의 조형이 배치돼 있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뤘다.

비오토피아카페에 들어가 잠시 숨을 돌리며 단지 조경을 감상했다. 이상우 공덕SK리더스뷰 관리소장은 "규모가 큰 대단지는 아니지만 아담하고 아기자기한 멋이 있는 게 이 아파트 조경의 특징"이라고 전했다. 이상우 소장에 따르면 단지 내에는 산수유, 배롱나무, 산철쭉 등 20여가지 종류의 나무가 식재됐다.

#### ◆전 가구 공원조망권 위치

이 소장의 안내에 따라 단지 뒤편에 있는 생태공간인 '육생비오톱'으로 자리를 옮겼다. 입주민의 건강을 위한 운동기구와 야외 휴게시설이 제법 잘 꾸며진 모습이다. SK건설에 따르면 이 공간에는 곤충 나비, 새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새집, 돌무더기, 장작더미를 만들고 들꽃과 나무를 심었다.

아현뉴타운 마포로6구역을 재건축한 공덕 SK리더스뷰는 지하 5층~지상 29층 5개동 472가구 규모 주상복합 단지로 총 가구 중 255가구가 일반에 분양됐다. 주택형은 전용 84㎡ 182가구, 97㎡ 47가구, 115㎡ 26가구로 구성됐다. 일부 고층세대에서는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전용 115㎡ 모든 가구는 단지 내 공원 조망이 가능하다.

교육시설로는 염리초, 용강초, 동도중, 송문중, 서울여중 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고, 경의선 숲길 공원과 이마트, 신촌연세병원, 마포아트센터 등 생활 편의시설도 가깝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사진=SK건설, 손진영 기자 son@



야외커뮤니티시설 '비오토피아 카페'



### 뉴스이벤트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광주시, '8인 사적모임' 오늘부터 전면 허용... 전국 처음  
▲ '나체감금 시신' 용의자들, 사망전 고소에 앙심 품었다 /사진 뉴시스

▲ 윤석열 직격탄 박용진 "자기 생각조차 자기 입으로 못 밝혀"  
▲ '김원웅 母 유공자 사칭' 의혹에 보훈처 "관련 자료 확인 중"



▲ 이준석에 날 세운 정의당 "李 차별금지법 입장... 輿가 하던 말" /사진 뉴시스  
▲ 軍 취사장에 조리로봇·야채절단기·고압세척청소기 투입